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통권 제 168호

2561
2017
10

계율이야기
차난 遮難

살다보면
시작과 끝의 무게

걸망에 담긴 이야기
표현할 것인가? 표현당할 것인가?

불교총지종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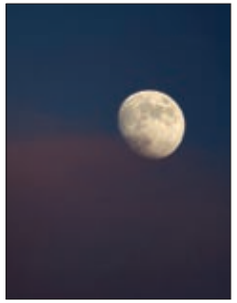
가까운 내마음에 극락極樂을 찾자

물건을 먼 곳에 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성불하기 어렵게 여겨지지마는,
자성불이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불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진리가 먼 데 있다고 생각한 즉,
깨치기가 어렵지마는,
만약 생활중에 있다고 안다면,
곧 능히 체득하여 깨칠 것이다.
극락이 서방 십만억 국토의 밖에 있다고 여긴다면,
죽은 후에나 왕생할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름지기 자기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음을 알지니라.
현세가 극락인 즉 이것이 곧 가엾는 고해에서
머리를 돌려 저 언덕을 바라보라고 한 비유인 것이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목차



불교이야기 _ 04
사성제의 가르침은 불교의 모든 것
_ 화령

디딤돌 _ 48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_ 지현

시선 _ 60
칭찬합시다!
_ 경문지

2561
2017
10

04 **불교이야기** 사성제의 가르침은 불교의 모든 것 _ 화령
10 **마중물**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 베풀다 _ 혜거
12 **계율이야기** 차난遮難 _ 법경
18 **살다보면** 시작과 끝의 무게 _ 이옥경
23 **향유** 달님이 그랬다 _ 박노해
24 **십선성취** 보물찾기 _ 보현
28 **마음의 등불** 일상 속의 관조 _ 김창업
31 **산책** 그럴 줄 알았어 _ 김대곤
32 **씨앗 한알**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_ 법상
36 **울림** 가을이 머물다 떠난 자리 _ 김재형
40 **발길 머무는 그곳에** 내원사를 찾아서 _ 강경중
44 **법향기 속으로** 효순 실천 _ 법수연
48 **디딤돌**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_ 지현
50 **차향기 속으로** 커피재배 _ 이선희
52 **거꾸로 보기** 왕자는 왜 구두로 신데렐라를 찾았을까 _ 박현희
56 **지혜의 뜨락** 손순의 효도 _ 덕현
60 **시선** 칭찬합시다! _ 경문지
64 **SNS 세상 돌아보기**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할아버지 왕데슌 _ 이선희
68 **걸망에 담긴 이야기** 표현 할 것인가? 표현 당할 것인가? _ 법일
70 **행복한 기지개** 건강기능식품 _ 식품의약품안전처
74 **뜻 바루기** 정토淨土 _ 김재동
76 **되짚어보기** 갈등葛藤, conflict
78 **만다라세상 컬러링**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한가위 달을 보며

중추상월仲秋賞月

歲歲年年夜夜懸　세세년년야야현
仲秋三五最淸姸　중추삼오최청연
對渠那得樽無酒　대거나득준무주
爲倩良朋敞錦筵　위천양붕창금연

해마다 밤마다 뜨는 달이건만
한가위 십오야가 제일 곱다네
너를 마주해 어찌 술이 없을쏘냐
좋은 벗 불러다 잔치를 열어야지

- 김효원 (金孝元, 1542~1590), 『성암선생유고(省菴先生遺稿)』卷1

시에서 말한 대로 해마다 밤마다 떠오르는 달인데
새삼 우리를 들뜨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건 정작 달이 아니라
그리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밝은 달밤과 맛있는 술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사성제의 가르침은 불교의 모든 것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불교의 근본은 사성제의 이해와 실천에서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간의 여타 종교와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간의 다른 종교들은 교주나 자기들이 믿는 신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리에 의심이 들어도 질문

을 못하게 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을 이단시하기도 합니다. 의심이 나는 것은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간주하고 무조건 믿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 폐단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불행을 가져오지만 역사적으로도 인류 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에도 그러한 맹신의 결과 지구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테러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분류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오온 십이처 등 가짓수로 잘 분류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누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법수法數라고 합니다.

사성제도 법수의 하나인데 사성제는 한 마디로 우리의 괴로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괴로움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즉, 무명無明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무명에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른바 십이연기十二緣起의 공식인데 이 십이연기는 우리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인 것입니다. 무명無明에서 시작하여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인 것을 유전연기流轉緣起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업을 짓지 말아야 하

며 최종적으로는 무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환멸연기還滅緣起라고 합니다. 무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된 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잘못된 인식과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등이 괴로움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는 십이연기가 주로 유전연기의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성제는 환멸연기에 중점을 두고 설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성제 가운데의 팔정도는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을 위한 여덟 가지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성제 자체로서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의 모두를 포함하는 이중구조로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성제와 집성제는 유전연기를 나타내고, 멸성제와 도성제는 환멸연기를 나타냅니다. 불교에서는 고를 멸하여 열반적정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사성제는 특히 환멸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성제 전체의 구조를 보면, 고와 집의 이제二諦는 미혹의 인과를 보여주고, 멸과 도의 이제는 깨달음의 인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은 고의 원인이 되고 고는 집의 결과가 되며, 도는 멸의 원인이 되고 멸은 도의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제의 각 항목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체로서 성불에 이르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고제는 깨달음이 없는 괴로움의 세계이며 집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고 있고 멸제는 깨달음의 이상세계를 보이며 도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제는 집제의 결과이며 멸제는 도제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고제와 집제가 유전연기를 나타낸다면 멸제와 도제는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한 환멸연기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성제는 고의 현상과 고가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고가 멸해진 상태와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성제의 구조는 마치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란 몸에 병이 든 것과 같으며, 집은 병의 원인에 해당되며, 멸은 병이 없어진 이상적인 상태이며, 도는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그 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단을 내려야만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없어진 건강한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치병治病원리에 의하여 중생들의 고를 덜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성제의 구조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고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가 멸해진 이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곧 팔정도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대의왕大醫王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러한 치병원리에 의하여 중생들의 고를 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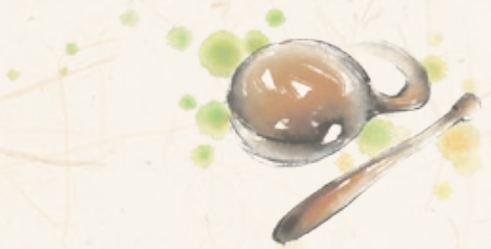
실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제어하는 이러한 사성제의 원리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과학적인 탐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없어진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문제점이 없어진 정상적인 상태, 혹은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상적, 혹은 이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성제의 이러한 구조는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체계도 사성제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그 역할이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성제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고의 실상을 명확히 알고, 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파악하며, 팔정도를 통하여 고를 제거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성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실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성제는 이론과 실천면에서 불교의 전체 구조를 축약하여 알기 쉽게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일이란
내 자신이 지금 당장 겪고 있을 때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지내 놓고 보면 그때 그곳에
그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 법정스님 -

마중물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 베풀다

혜거
금강선원 주지

옛사람들은 오복(五福)이라 하여 다섯 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수(壽)가 첫 번째이니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부(富)가 그 다음이니, 오래 살아봤자 가난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강녕(康寧)이니, 오래 살고 돈이 많아도 병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낸 복입니다.

그 다음이 유호덕(攸好德)입니다. 돈도 많고, 병도 없이 오래 살지만 삶이 즐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옛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덕(德)입니다. 덕을 좋아하고 남에게 즐겨 덕을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호덕입니다.

그 다음이 고종명(考終命)입니다. 고종명은 하늘이 내려준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한동안 웰빙Well-Being이란 말이 무척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웰다잉Well-Dying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처럼 고종명이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한 정신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복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호덕'입니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병 없이 살고,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유호덕을 잘 모릅니다.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풀 줄 모릅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자식들 잘되고, 제 몸 건강하면 그만인 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옛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 있고 풍요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서양 사람들도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사회적 가치들을 사회에 되돌린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회에 덕을 베푼다는 유호덕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가 봅니다.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 모두 유호덕을 이야기했으니 말입니다.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유호덕을 이야기했으니 말입니다.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유호덕을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율이야기

차난遮難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_29

10차遮

지난 호에서 도둑질 한 여자인줄 알면서 계를 주면 승잔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출가자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출가를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가를 허락할 수 없는 것을 차법遮法이라 한다. 즉 출가를 차단하는 법이다. 그 법을 10차13난이라 한다.

차난이란 출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한다. 『사분율』에서는 10차13난이라 하여 출가를 희망하는 자를 사전에 심사를 하고 있다.

10차는 열 가지의 차법을 말하는데, 출가 희망자를 심사하는 열 가지의 조항을 말한다. 그 열 가지란,

1.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2. 화상의 법명은 무엇인가?
3. 몇 살인가?
4. 옷과 바루는 준비되었는가?
5. 부모의 허락은 받았는가?
6. 빚이 있는가?
7. 노예출신인가?
8. 관리출신인가?
9. 결혼을 했는가?
10. 중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묻는 이유는 종성種姓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즉 어떤 신분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석존께서 이러한 절차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승가의 안녕과 질서유지, 정법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차법을 둔 것은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출가자를 뽑는 과정이며, 청정승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13난難

난難이란 출가시키기에 곤란한 자를 말한다. 즉 출가자의 자격을 논한 것이다. 여기에 13난이 있다.
무엇이 13가지인가 하면,

❶ 바라이를 저지른 자인가?
❷ 비구니를 겁탈한 자인가?
❸ 가짜 비구로 행세하지 않았는가?
❹ 전향자로서 도를 파괴한 자가 아닌가?
❺ 거세자나 동성애자, 성불구자인가?
❻ 아버지를 살해한 자인가?
❼ 어머니를 살해한 자인가?
❽ 아라한을 살해한 자인가?
❾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자가 아닌가?
❿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자가 아닌가?
⓫ 사람이 맞는가?
⓬ 축생이 아닌가?
⓭ 양성자가 아닌가? 등등을 묻고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죄를 짓고 들어오는 경우 등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겠지만, 당시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상황과 취지,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문구 자체 보다 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 취지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왜 그러한 법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한 적이 있는가? 학력을 위조하지 않았는가? 등등을 들 수 있겠다.

차난은 차별이나 불평등의 조항이 아니라 승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가자로서 손색이 없는 자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밀교에서 차난이란?

밀교에는 이와 같은 차난이 없다. 대신 밀교의 양부대경 가운데 하나인『대일경』을 보면, 스승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재가자가 갖추어야 할 덕성, 수행자로서 지켜야할 금계禁戒 등이 설해져 있다. 출가자의 차난 보다 자격기준이 더 까다롭고 지키기도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밀교의 스승은 높은 도덕성과 깊은 수행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밀교의 수행자는 상근기의 보살이며, 부동지不動地라는 높은 경지에서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다음호에서 밀교 수행자의 자격에 대해『대일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진심 어린 맘을 주었다고 해서
작은 정을 주었다고 해서
그의 거짓 없는 맘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깊은 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걸 걸어버리는
깊은 사랑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 법정스님 -

살다보면

시작과 끝의 무게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하다.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어느 새 산과 들에도 가을빛이 물들기 시작했다. 이런 계절의 변화 탓인가, 요즘 너 나 없이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세월 참 빠르다는 얘기다.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넘이 · 해맞이 행사로 떠들썩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의 4분의 3을 뭉청 잘라먹고 보니 그 많은 시간을 도둑이라도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제 곧, 머지않아,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다시 이 한 해를 기억의 저편으로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시작은 늘 설레지만 내년 이맘 때, 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이면 또 다시 세월유수歲月流水, 광음여류光陰如流, 석화광음石火光陰 하면서 속절없이 빠른 세월 타령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작의 순간이 어디 새해뿐이겠는가. 누구에게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떨어져 나와 삶의 긴 여정을 시작한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시작했을 것이며 어렵사리 몸을 뒤집고 배밀이를 하다가 기기 시작해 마침내는 걸음마를 시작했을 것이다. 말을 배우고, 떼쓰고 욕심내기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고 글자를 익히고 덧셈 뺄셈도 시작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는 것처럼,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다른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랑도 미움도 이별도 다툼도 아픔도 좌절도 용서도 화해도…, 사람의 일에는 모두 다 시작의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내게도 수많은 시작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내 기억의 시작은 세 살(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해를 계산해 보면) 때다. 등잔 불빛이 까무룩하던 방안,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이불에 기대앉은 외할머니가 쪽 지었던 긴 머리를 어깨 위로 흐트러뜨린 채 엄마가 숟가락으로 긁어 드리는 배를 힘겹게 받아 드시던 모습이 흑백사진처럼 선명하다.

배즙조차 삼키기가 버거웠던지 외할머니는 엄마 옆에서 턱을 받치고 있는 어린 나를 가리키셨다. 나를 주라고. 제비새끼처럼 그것을 받아먹으며 신바람을 냈던 꼬맹이에게 남아 있는 건 슬픔이 아니라 단물이 뚝뚝 떨어지던 배 맛이다.

또래들 눈 밑에도 채 이르지 못하는 작은 키의 나를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갸웃, 뜨악한 얼굴로 이름 쓸 줄 아냐고 묻던 선생님 앞에서 삐뚤빼뚤 써 보였던 세 글자. 초등학교 입학을 결정지어 줬던 그 순간을 시작으로 나는 공식적인 배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 애가 나를 좋아한단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평소 소닭 보듯 하던 남자반과 여자반이 다과회를 가진 자리였다. 장난기 가득한 선생님들의 강압에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다는 남자 아이들의 고백이 이어졌다. 아! 그리고 내게도…! 누군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던 환호성, 그 순진무구하던 부끄러움과 설렘은 추억이 된 지 오래지만, 나는 안다. 그 작은 꽃씨가 훗날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고 졌다는 것을.

한 생명의 어미가 되는 일에도 사랑이라는 시작이 있었으며, 작가라는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추운 골방에서 장갑을 끼고 혼신을 다해 글을 쓰던 절체절명의 시간이 있다. 내가 처음으로 장만한 집을 둘러보며, 벽에도 천정에도 온통 내 땀방울이 찍혀 있는 것 같다던 친정 엄마의 젖은 목소리에 담겨 있던 내 가난한 삶, 그 갈피마다 켜켜이 쌓인 좌절과 방황에도 출발점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별에도, 친구의 배신에도, 거듭되는 삶의 부침에도, 십 수 년 전 도시를 떠나 이곳 바닷가에 터를 잡게 된 데도…, 다만 그것을 예감하거나 예비하지 못했을 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누구나 해피엔딩을 꿈꾼다. 찬란한 삶의 여정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달리 고해苦海라고 하겠는가.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게 생각처럼 만만하기만 하다면야.

시작은 매번 새롭고 매번 뜨겁다. 하지만 더 높은 곳, 더 달디 단 열매, 더 빠른 길을 찾다보면 첫 걸음을 뗄 때의 순수나 간절함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생기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온갖 유혹이 손을 내민다. 흐르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시원한 그늘에 누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사이, 가야 할 길은 가던 길을 잃는다.

허망하게 흘려보낸 시간이 그러하듯, 싱그럽던 꿈에 무성하게 돋아난 잡초를 보는 일은 참 쓸쓸하다. 그 길의 어디쯤에다가 내 첫 마음을

잃어 버렸던 것일까. 인생의 가을쯤에 다다르고 보니 치열하게, 최선을 다 하지 못했던 지난봄과 여름이 못내 아쉽고 아프다.

요즘『화엄경』에 있는 '초발심시 변성정각 初發心時 便成正覺'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무하는 중이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맨 처음의 결심이 그 깨달음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처음의 마음가짐이 곧 부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잡아함경』에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때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마지막도 좋아야 한다'는 초선初善 · 중선中善 · 후선後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 법문도, 중생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결 같이 진실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나 '초선 · 중선 · 후선'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을 지킬 것을 이르는 말은 아닌지. 처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던가. 얼마나 절실했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어설픈 변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설렘만큼 두렵던 첫 걸음, 그 시작의 순간을 잊지 않는다면 그 끝 또한 아름다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토닥토닥 스스로 어깨를 두드려 본다.

향유

달님이 그랬다

박노해
시인

한가위 고요한 밤에

둥근 달님이 그랬다
괜찮아 괜찮아
초생달 그믐달이래도 괜찮아

차고 기우는 세월을 돌아 나온
둥근 달님이 그랬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살아왔으니

세계를 다 비춰 들여다본
둥근 달님이 그랬다
괜찮아 괜찮아
더 어려운 이들도 살아가니까

한가위 고요한 밤길에
둥근 달님이 그랬다
나만의 길을 찾아 울며 가도 괜찮아
어둠을 살라 먹고 해는 다시 뜨니까

괜찮아 괜찮아
맑은 눈이면 괜찮아

보물찾기

보현
실보사 전수

무척이나 게으른 아들을 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쓰는 것만 알지 달리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으르고, 배우는 것은 뒷전이며 아버지의 장사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생계를 꾸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부자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에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가난뱅이가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으나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더더욱 게을러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더없이 사랑했으므로 아들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부자 아버지는 드디어 한 가지 지혜로운 생각을 냈습니다. 재단사를 불러 웃저고리 한 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옷이 완성되자 아버지는 그 옷이 다 해질 때까지 매일 입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너는 내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될 것이다. 유산을 잘 관리하기 바란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저고리는 잘 간직하며 언제나 입고 다니거라. 그렇게 해 준다면 내 마음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해진 옷을 바라보며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아버지의 염려대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는 다른이에게 팔렸으며 집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재력이 사라지자 친척들과 친구들 또한 그 곁을 떠났습니다.

끼니도 굶으며 이곳 저곳을 떠돌다 하루는 어느 나무 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몸 아래쪽에서 딱딱한 뭔가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돌멩이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샅샅이 뒤져보니 닳아빠진 웃저고리의 안감 속에서 보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저고리 안감 속에 넣어둔 값비싼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그토록 여러 해를 보낸 후에야 자신이 부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교훈을 배운 터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 유산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한 채 구하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이을 돈벌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며 그는 기쁘게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현모습도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밖의 것, 남의 것만을 보며 부러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어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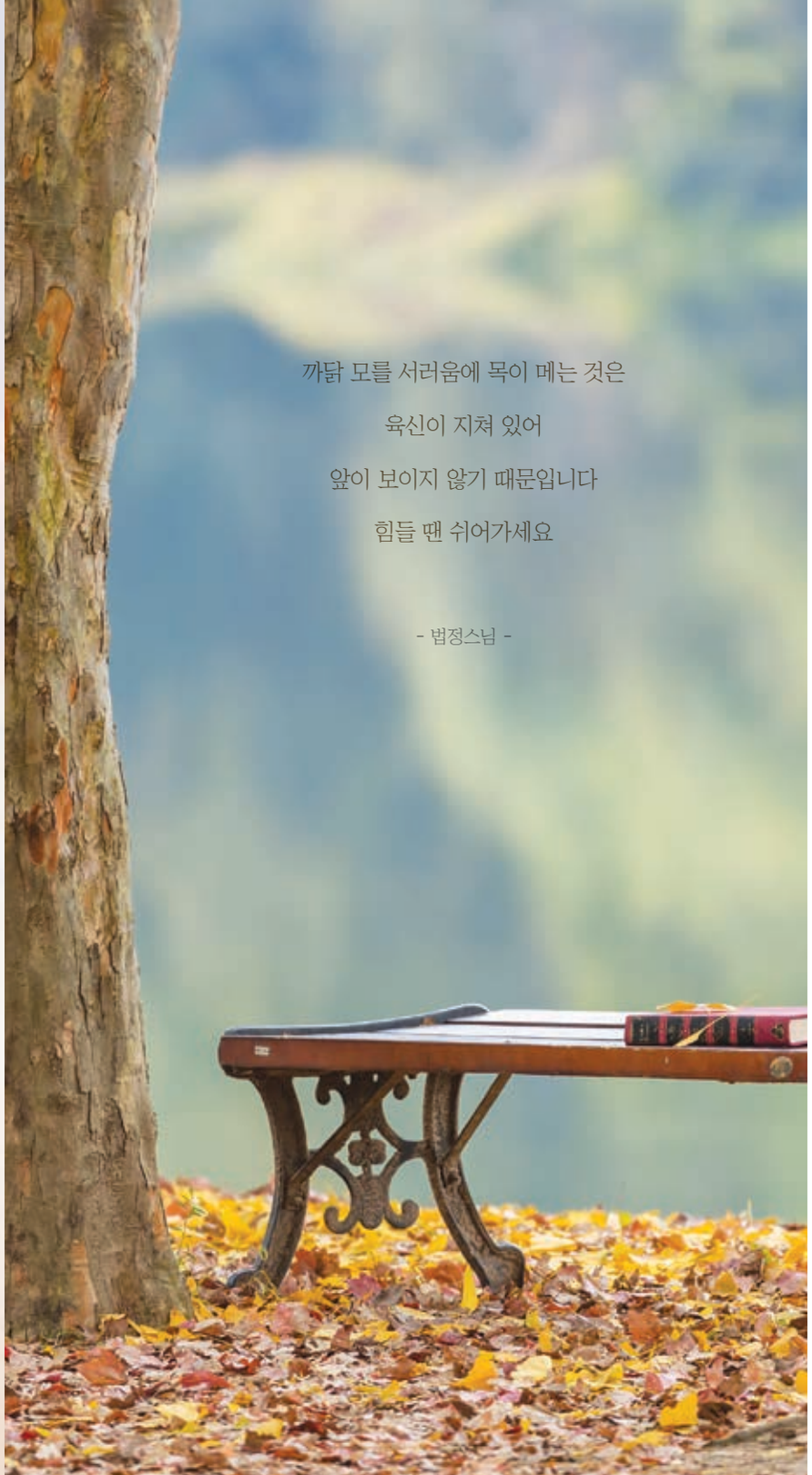
은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긴장과 불안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미래가 두려워 현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 그 안에 경이로운 보물이 가득합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경이로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있는 자각과 이해, 사랑이라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각과 이해는 타인과 주변 환경 그리고 세계적 문제까지도 사랑으로 포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뭄, 기아, 민족분쟁,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나 혼자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자각하고 이해한다면 나의 행동과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나의 변화는 다른 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소중한 하루를 보내기보단 희망과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을 주변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희망과 사랑



까닭 모를 서러움에 목이 메는 것은
육신이 지쳐 있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 땐 쉬어가세요

- 법정스님 -

일상 속의 관조

김창업(金昌業)
1658~1722
조선 후기의 화가·학자

작은 못에 호미를 씻으려다[洗鋤小池]

石梁俯小池	석량부소지	돌다리에서 작은 못 굽어보노라니
楓陰水常靜	풍음수상정	단풍 그늘 속에 물은 늘 고요해라
儵魚戲從容	조어희종용	피라미란 놈 조용함을 희롱하는지
故觸丹書影	고촉단서영	짐짓 붉은 글씨 그림자를 건드리네

- 김창업(金昌業, 1658~1722), 『노가재집(老稼齋集)』 2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가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이제 온 산하는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갈 것이다. 천지 붉은 단풍 속에 한 몸 섞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자그마한 못, 맑은 물에 비친 단풍잎을 바라보는 것도 운치가 있으리라. 그 작은 못에서 피라미 떼가 찰랑찰랑 헤엄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또 이것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도 맑은 물이 잔잔히 솟아나지 않을까.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은 당대를 대표하는 명문가의 자손이었지만, 일찌감치 벼슬 욕심을 버리고 한양 도성 동쪽, 지금의 성북구 장위동 인근의 송계松溪에 동장東庄을 마련하여 평생 손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이곳에 거처했던 '노가재'를 비롯하여, 농사의 의미와 은거의 정취를 담은 여러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는 여가에 자연을 관조하며 삶을 성찰하였다.

이 시는 시인이 농사를 마치고 작은 못에서 호미를 씻으려다 '관조량觀鯈梁'이라 이름 붙인 돌다리에서, 순간 포착된 자연을 관조하며 읊은 것이다. 돌다리에서 굽어본 못에는 단풍이 고요한 수면에 비치고 그 안에는 피라미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다. 그런데, 피라미들이 돌다리에 새겨진 붉은 글자의 그림자를 건드리며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글자 속 피라미와 실제 피라미의 만남이 묘하다. 여기서 장자莊子가 호량濠梁에서 교감하였던 물고기와 중용中庸에 나오는 '연비어약鳶飛魚躍'의 활발한 생명의 약동을 상기한다면, 저 못은 하나의 소우주이자 내 마음이리라.

시인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림으로써, 일상 속에서 늘 접하면서도 포착하기 어려운 자연의 움직임을 관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내면의 성찰과 정신적 고요를 얻었던 듯하다. 요즘 같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는 주변 사물에 대한 관조와 내적 성찰이라는 말이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인처럼 버림으로써 얻는 관조와 심미적 체험은 이 시대에도 더없이 좋은 약이 될 수 있으리라.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정동화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산책

그럴 줄 알았어

김대곤
시인

마침내
칼을 들어 베기 시작했어
뚝!
뚝!
그 끝에 핏 자욱이 선명한걸보고
바로 알아 버렸지
여름내내 괴롭히던 녀석을
바람의 선선함을 빌어 잎들은 날을 세워
휘젖은거야.
놀란 하늘이 하루만에 세 걸음 더 물러선 걸 보면
꽤나 놀란거갈애
파랗게 질려 있는것 보니...

씨앗한알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법상
목탁소리 카페 지도법사
원광사 주지

삶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기에 삶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술, 담배, 약물 중독이나 고통이나 분노나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런 성향을 인정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고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면 '받아들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한다.

먼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중독적인 대상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보통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중독된 것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도리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고 만다.

보통 사람들은 중독되었을 때 중독에서 놓여나는 방법으로 중독적인 것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택하곤 한다. 정신력으로 그것과 싸워서 영광스럽게 승리를 거두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사실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방법도 못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독적인 대상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나와 중독적 대상 둘을 나누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로 나누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선택받고 하나는 소외되며, 둘 중에 하나는 적이 되고 하나는 아군이 되고 만다. 둘로 나뉘는 곳에는 언제나 분리감, 다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싸워 이겨야겠고,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은 그 중독적인 것을 거부하는 생각이다. 중독과 싸워 이기려는 그 에너지로 인해 우리는 늘상 에너지가 낭비되고 탈진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음속에서 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더욱 큰 에너지를 받게 된다. 거부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에너지를 키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중독적인 것들은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진다.

거부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거부하는 바로 그것이 지속된다. 중독적인 것에 더 중독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거식증과 폭식증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다. 음식을 안 먹겠다는데 집착이 심한 사람은 안 먹고 안 먹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 먹고 싶은 것을 꾹꾹 눌러 참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면 결국 눌러 참고 참다가 그냥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이다. 폭발해서 그 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먹어 대는 것이다. 거식증에 집중된 에너지가 도리어 다른 극단인 폭식증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다. 어느 한 쪽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면 그 반대편, 반대급부도 상승하는 것이다. 이 우주는 모두가 파장이라고 하는데, 파장이라는 것의 특성이 어느 한 쪽이 크게 올라가면 반대로 내려가는 파장도 증폭이 커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 중독적인 것을 끊어 없애려고 싸워서도 안 된다면, 그냥 중독적인 것들을 계속 좋아하고 빠져들어 계속 중독된 삶을 넋놓고 그저 중독된 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 또한 중독적인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에 마찬가지로 에너지 낭비가 심해진다. 담배를 구하고, 마약을 구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러 뛰어다니느라 힘이 빠지고, 또한 술 담배며 약물을 취하면서 더욱 더 생명력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면 어찌해야 할까? 중독적인 것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담배나 술이나 약물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 좋아해서 구하고 취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싫어해서 거부하고 싸워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 중도적인 방법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자비의 방식이다. 참된 자비란 무엇일까? 참된 자비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지 않음으로써 나뉘지 않은 전부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둘로 나누지 않는 불이不二의 방식이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 방식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과 '알아차림'이라는 놀라운 연금술이다.

울림

가을이 머물다 떠난 자리

김재형
수필가

어느새 가을이 내 그림자를 비켜가고 있다. 조석으로 서늘한 기온이 감돌고, 한낮에는 대지를 달구던 열기에 미련이 남아서일까, 윤기 잃은 나무 잎은 아쉬운 듯 졸고 있다.

가을!

우리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가을의 흔적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자세히 보고, 오래도록 살펴보아야 한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비단 들꽃만이 아니다. 사물을 심미안審美眼으로 세심하게 관찰해 보아야 한다. 가을이 우리들에게 일러 줌은 비록 무어라 꼭 찝어 말할 수 없으나 소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 그 자체가 가을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수묵화로, 산수화로, 그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되어 길손들의 눈길을 멈추게도 한다.

청량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가을볕에 녹녹한 마음 한 자락을 활짝 펴서 청청한 하늘에서 내려앉은, 고운 햇살을 마음껏 호흡하고 싶은 욕심이 절로난다.

한 때는 화려한 봄꽃 잔치에 날개짓도 요란했건만, 결국 여름의 장마전선을 못 넘기고, 계절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외면할 수는 없는가 보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 시리고, 아픈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다.

가을은 자신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계절이기에 더욱 미련이 남는 지도 모른다.

봄의 양광 아래 자라난 삼라만상이 여름의 태양 아래, 온갖 멋부림을 하다 가을이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것을 보면 달관된 성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랴.

서녘 하늘에 기우는 아름다운 석양빛을 보면서, 가을앓이가 무엇인지 알 것만 같다.

은혜로운 태양의 정열을 반기며, 온 산하에 곱게 물든 각양각색의 가을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간다.

바람같이 왔다가 매정하게 스쳐가는, 세월 앞에 모든 것이 허전하고, 지나간 세월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요, 성찰의 계절이라 했다.

가을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내일을 위한 자신의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는 계절도 없을 것 같다.

나는 가을을 좋아한다. 조락의 의미와 살아온 인생을 음미하면서 깊어 가는 가을을 사랑하고 싶다.
청청한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번 내 마음에 응어리진, 온갖 번뇌를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훨훨 날려 보내려고 한다.

가을이 짙게 물들어 가고 있다.
이 세상에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하늘 높이 덩실 띄우고 싶다.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을 수 없으면 즐기기라도 해야 한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너도 나도 풍요로운, 이 가을의 향연에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참여하자.

찜통 같던 더위와 햇살도 이미 저 만큼 가 있는 가을!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아름답게 채색된 잎새도 낙엽으로 사라질 것이다. 앙상한 나목에서 스스로 살아 온 인생을 반추해 본다.

가을하면 세월의 잔인함과 인생무상을 느끼게 한다. 이제 내 남은 여생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곰곰 생각하면서 강변길을 걷는다.
강변에 늘어선 수양버들 가지가 흐르는 강물에 드리워져, 기우는 햇살 받아 연분홍 고운 빛깔로 물들면, 수채화처럼 은은한 풍경화를 연출하고, 강변을 거닐던 산책객들은 서럽도록 아름답고, 눈이 시리도록 현란한 풍경에 도취되어 스스로 황홀경에 젖어 든다.

오늘 따라 강변길을 드라이브로 즐긴다면, 올 가을은 더욱 특별한 가을맞이가 될 것 같다.

춘·하·추·동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시인이고, 철학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이 우리들에게 내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도 해 본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말 이다.
자연이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함 때문이다. 보고 또 보아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늘 새로운 모습들이다.

어느새 꽃들이 시들었다. 그러나 시들었음에도 거기에는 삶의 미학이 있다. 꽃이 시들지 않았다면 어찌 열매가 있으랴, 꽃이 피고 짐을 보면 한 순간의 일 같으나 삶의 한 과정일 뿐,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도,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축복할 일도 아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엔 흐르는 세월이 안타깝긴 하지만, 소중한 것은 참고 견디어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이 가을엔 한 편의 시를 쓰고 싶다. 온 몸으로 살아있는 모두를 사랑하고 싶다. 가을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누워 지나 온, 내 삶을 아름다운 서사시로 남기고 싶다.

내원사를 찾아서

강경중
정각사 단월회장

이번 산행은 천성산의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계곡행이다.

그 계곡이 이름난 내원사 계곡이라니!

천성산을 오르는 데는 유달리 여러 방향, 많은 접근로가 있다. 불도를 닦는 길도 그렇지 않은가? 백용성 스님은 불교에 "간경문, 염불문, 참선문, 주력문" 이렇게 네 개의 큰 문이 있다고 했다. 천성산을 오르는 길도 크게 보면 아마 네 가지쯤 되겠지만 어디 그 뿐이랴!

또 정상을 향해 오랜 시간 힘 들여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법신불의 가지加持로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공수되어 거기서부터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쉬운 길도 있다.

▼ 내원사 계곡

밑에서 오를 때는 앞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정상에서 조감해 보면 "내가 살던 고향의 복사꽃 핀 옛집"을 쉬 볼 수 있고 안전하고 쉬운 접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총지종 불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주차장에 내리니 익성암益聖庵 담 너머에 핀 붉은 백일홍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우리는 주차장에서 심성교尋聖橋를 건넜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아이구, 이 일을 우짜면 좋노?"하고 보살님들이 억센 경상도 억양으로 소리를 쳤다. "물 좋은 계곡이라 찾아왔는데 바짝 말라버렸네!" 하고 탄식이다. "용이 산다는 용연인데 설마 상류까지 말랐을라고? 힘내어 올라가 봅시다".

진입로 입구에 산령각이 있었다. 영축산으로 가는 일천 구법당승을 천성산으로 인도하신 그 산신령님인지는 알 수 없다. 갈 길이 바쁘다고 해서 신고 없이 영역을 무단 침범할 수 없지 않는가. 선체로 반배의 예를 올리고 계곡을 끼고 걸었다. 계곡과 바위와 숲이 삼박자를 잘 이룬 명품이라 여름에도 많이 찾지만 특히 가을 단풍이 찬란하기로 이름난 계곡이다. 내장산 설악산 단풍이 전국적인 명승지라면 내원사 계곡의 단풍은 영남 제일로 손꼽을 만한 절

▲ 물없는 노전암계곡

경이다. 한데 오늘따라 한 박자에 이상이 생기고만 것이다.

올라가도 물은 귀했고 이따금 바닥에 처박혀 있는 나뭇등걸의 잔해들이 용의 시체처럼 흉하게 보였다. 용연에 살던 용들이 오랜 가뭄에 죽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진산교를 지나고 금강교金剛橋를 건너 옥류교玉流橋가 나타났다. 옥류란 옥계청류玉溪淸流라는 말이 아닌가? 옥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란 말인데 그 물의 흐름을 오늘은 볼 수가 없다. 이따금씩 옥녀탕 같은 소沼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 곳에는 가족 소풍객이 자리를 선점하여 삼삼오오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즐기고 있었다.

행복이란 별것 아니다. 더울 때는 훌훌 벗어부치고 최소한의 몸 가림으로 계곡에 몸을 담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마음의 때까지 씻어낼 수 있다면 학과 청풍명월淸風明月을 벗할 수 있으련만!

다음 만난 다리가 세진교洗塵橋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묻은 흙먼지를 이 옥계청류에 다 씻어버리라는 말인데 옥계는 있어도 청류가 없으니

◀ 내원사

아쉽도다.

잘 닦아진 아스팔트 숲길을 오르는 기분은 마치 삼림욕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내원사를 건너가는 마지막 다리인 여의교如意橋가 나왔다. 다리를 건너자 '내원사'란 현판과 '동국제일선원'이란 간판이 보였다. 여기서는 참선으로 여의보주를 구하려하고 우리 총지종은 진언으로 마니보주를 구하려하니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내원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 도량답게 정갈하고 고요했다. 다소곳한 행자스님들이 나그네들에게는 눈 한번 주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고의 정적이 감도는 적멸의 한가운데서 시공이 끊기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광객이 들이닥치자 순식간에 적막은 깨어지고 저자거리가 된 분위기다. 내원사가 어떤 곳인가? 도솔천궁의 안뜰이 아닌가? 옷깃을 여미고 경건해야 할 도량에 와서 부산떨다니, 괜스레 미안한 생각이 들어 서둘러 경내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이번 산행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다리를 많이 건넜다는 것이다. 내가 들먹인 다리 이름만 하더라도 일곱이나 된다. 도솔천 내원궁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도 힘든 길인가 싶어지면서 우리 총지종은 법신의 가피로 한 걸음에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있으니 복 받은 사람이란 생각된다. 빠르면 삼세성불, 늦으면 아승지겁 성불인데 비하여 우리는 즉신성불이고 현생성불이 아닌가?

효순 실천

법수연
화음사 전수

효친 孝親

(종조법설집 p.119)

조상 제사는 무슨 뜻으로 받드는가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효순하는 근본을
굳게 세우려고 행사한다.
어버이에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하고
어버이에 불효하면 자식 또한 불효한다.
자부비모 은덕으로 일체남녀 안락이라
자부은혜 산과 같고 비모은혜 바다같다.
대지비록 무겁지만 부모은혜 더 중하며
수미산이 높다하나 부모은혜 더 높으며
자식위한 일념생각 태풍보다 더 빠르다
덕에 배반 하지 말라.
자녀들이 부모로서 원망의 말 내게 하면
자식들은 그 말끝에 바람보다 더 빠르게
고난함을 곧 받는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안색순케 받들어서
비모 뜻을 좇게 되면
일체재난 소멸되고 제천이다 옹호하여
항상 안락하게 된다

- 大乘報恩心地觀經 -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추석에 조상님께 차례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과 같고 바다 같은 부모님께 효순하는 근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명절 풍습은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모였을 때, 마음 한번 잘 쓰면 복을 지을 계기가 되고, 잘못 쓴다면 화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지요. 효행을 행할 때에는 물질적인 공세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일찍 와서 일도 많이 했는데, 누구는 돈도 겨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경솔한 언행을 반가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고 보면 하는 사람도 못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 보셨겠지요. 명절이 끝나면 소아과를 찾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평소와 다른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 육체적 피로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간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일로 인해 내 자신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자녀들이 두통이나 열로 인해 힘들 것이고, 자신이 물질적인 일로 힘들었다면 설사나 구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불선업으로 인해 자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아픈 주사와 입에 쓴 약을 먹게 됩니다. 왜 나에게 업보가 오지 않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업보가 가느냐는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받기도 합니다만 사랑의 무게가 쏠리는 자녀에게 법문이 갈 때,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당체법문의 원리로 봐야겠지요. '자식들은 바람보다 더 빠르게 고난함을 곧 받는다.'는 경전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과 진리를 병행해서 마음을 다스린다면, 보다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유독 마음고생이 심한 명절을 보냈다면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조상님을 모셨는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의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행여나 살아생전에 여의치 못한 관계였다면 참회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장을 보고 음식을 한다면 진심은 반드시 부모와 조상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명절 전, 일주일이나 사흘, 하루라도 가족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돌아가신 분들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불공을 정해서 진리적으로 먼저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장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움직이는 가족의 무사안위를 위해 서원하며 차별 희사나 절량 희사를 행한다면 보다 원만한 고향 길이 될 것입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에도 먼저 차별 희사를 하거나 절량 희사를 세우고 간다면 여느 날과는 다른 미묘한 법미法味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 젊은 보살님께서 시장 가기 전에 이런 법문이 생각나서 차시를 쓰고 잠깐의 서원을 하고 갔더니 자신이 사려고 했던 것을 1+1 깜짝세일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고만 할까요?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진리로 먼저 실천하면 여법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겁니다.

생활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평소에 닦고 키워온 마음을 이번 추석명절에 십분 발휘하여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서원합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지현
단음사 전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세상에.....
시 한 편으로 이리 마음이 맑아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가~
좋고 근사한 것을 보더라도 마음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하는 일이 대부분인 요즘에 둥그런 달 하나에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고 단박에 전화로 기별을 넣어 주는 일이
이리도 가슴 설레고 근사한 일이 될 줄이야…
그야말로 사소한 마음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밤하늘에 달빛이 휘영청 거릴 날이 머지않다.
아마도 달빛을 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거나,
소중한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모쪼록 달빛만큼이나 크게 떠오른 마음을 품지만 말고
지극히 함께 나누는 고운 날이 되기를 빈다.

커피 재배

이선희
프리랜서

커피 벨트 Coffee Belt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위 25도에서 북위 25도 사이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만 생산된다. 세계지도를 펼쳐 생산 국가를 살펴보면 벨트 모양처럼 가로로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커피 벨트 또는 커피 존Coffee zone이라 한다. 커피의 주요 생산 국가는 약 60여 개국이다.

재배 조건

01 기후

아라비카는 까다로운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다. 재배 지역의 연 평균 기온이 15~24℃ 정도로 기온이 30℃를 넘거나 5℃ 아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하고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뚜렷해야 한다. 커피 재배에 적당한 강우량은 아라비카가 연간 1,500~2,000mm, 로부스타는 2,000~3,000mm 정도이며 아라비카는 로부스타에 비해 가뭄을 더 잘 견딘다.

02 지형과 고도

커피 경작에 적합한 지형은 표토 층이 깊고 물 저장 능력이 좋으며 기계화가 용이한 평지나 약간 경사진 언덕이다. 아라비카는 800~2,000m의 높은 지대에서 재배가 되며 로부스타는 700m 이하의 낮은 지대에서 재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지대에서 생산된 커피일수록 밀도가 높으며 향이 풍부하고 맛이 좋고 더 진한 청록색을 띤다.

03 토양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화산성 토양의 충적토로 약산성이 더 좋다. 또 다공질 토양이 투과성이 좋고 뿌리가 쉽게 뻗을 수 있으며 배수 능력도 좋다.

04 세이딩(Shading, 그늘재배)

커피나무는 강한 햇볕과 열에 약하다. 그래서 이를 차단해 주기 위해 다른 나무를 커피나무 주위에 함께 심어 주어야 한다. 이때 심는 나무를 '셰이드 트리Shade tree'라 하고 이렇게 재배된 커피를 '세이드 그로운 커피Shade-grown coffee'라 한다. 셰이딩은 수분 증발을 막아 주고 일교차를 완화시켜 줄 뿐 아니라 토양 침식을 막아 주고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며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셰이딩을 하지 않고 대량으로 재배하여 생산된 커피를 '선 커피Sun coffee'라 한다.

거꾸로보기

왕자는 왜 구두로 신데렐라를 찾았을까

박현희
독산고 사회교사

신데렐라에 대한 첫 번째 오해

신데렐라처럼 수많은 오해와 헛소문으로 둘러싸인 동화 속 주인공이 또 있을까? 이렇게 구설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신데렐라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의미겠지. 맞다. 신데렐라는 세상 모든 여성들의 꿈의 상징이며 공주의 대명사로 통한다.

오해가 있다. 먼저 신데렐라는 공주가 아니다. 신데렐라는 그냥저냥 잘나가는 집 딸로 태어났다가 어려서 생모와 사별하면서 지지리 고생만 한다. 오죽하면 이름이 신데렐라란 말인가. 신데렐라는 모두 잘 아는 대로 재투성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신데렐라가 감당해야 했던 고된 노동의 흔적이기도 하다. 왕가의 무도회에 초대받을 정도의 집안인데 왜 그냥저냥 잘나가는 집이냐고 누군가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신데렐라가 감당했던 온갖 노동을 생각해 보면 그 집안에는 변변한 하녀가 없다는 것을 곧바로 눈치챌 수 있다. 하녀에게 줄 쥐꼬리만 한 급료를 아끼기 위해 계모가 의붓딸을 괴롭혀야 할 정도라면 윤택한 집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왕자의 기이한 행동들

신발에 대한 궁금증은 왕자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나는 진정으로 궁금했다. 왕자는 왜 신데렐라를 신발로 찾았을까? 두 번의 무도회에서 신데렐라하고만 줄창 춤을 췄으니 신데렐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전문가를 불러 몽타주를 작성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는 대신 신발을 들고 일일이 처녀가 있는 집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자처하고 나섰다. 물론 왕자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초상화를 전국에 뿌려 신데렐라를 찾아냈다면 신데렐라 스토리는 김빠진 사이다처럼 밍밍한 결말을 맞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왕자가 자기가 출연하는 동화의 흥행을 위해 번거로움을 자처했다고 결론 내리기는 너무 낯 뜨거운 일이다.

사실 왕자는 상당히 용의주도한 성격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으리라. "속지 말자 조명발, 다시 보자 화장발." 다시 말해 무도회의 그 밤을 위해 몇날 며칠을 때 빼고 광내는 데 보낸 여인네의 모습을 그린 몽타주를 들고서는 훤한 대낮에 민낯의 신데렐라와 정면으로 마주쳐도 알아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왕자가 시종들에게 이렇게 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 신발이 꼭 맞는 아가씨를 찾으라.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그런데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발 크기가 같은 사람이 세상에 한둘인가? 당신의 신발 사이즈는 얼마인가? 나는 235이다. 대한민국에 발 크기가 235인 여자는 전체 여성의 몇 퍼센트나 될까? 동화를 꼼꼼히 읽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신데렐라의 발이 아주 작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20? 215?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 사이즈가 신데렐라만의 고유한 사이즈가 아닌 이상 신발이 맞는다고 본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일인가. 다 알다시피 왕자는 "신데렐라와 결혼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다.(신데렐라는 본명도 아닐뿐더러 그녀의 이름이 신데렐라인지도 몰랐으니 당연하다.) "무도회에서 나랑 계속해서 춤을 춘 그 아가씨와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뿐이다. 왕자쯤 되는 자가 이토록 허술하게 명을 내리는가. 의심이 생긴다. 같은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상황은 아주 복잡하게 꼬이는 것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자쯤 되는 자가 절실하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 내뱉은 말이 근거 없는 헛소리일 리는 없다. 왕자는 신발을 통해서 정말로 신데렐라, 즉 그날 밤 무도회의 그 아가씨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신데렐라의 신발은 맞춤이었다

가능하다. 비밀은 그 시대의 신발 생산 방식에 있다. 평균치로 신발을 미리 만들어 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시대는 신데렐라 시대가 훨씬 지난 뒤에야 찾아온다. 당시에는 누구나 신발을 맞춰서 신었다. 신발이 필요한 사람은 마을의 구두 장인을 찾아가고, 구두 장인은 고객의 발 치수를 신중하게 재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신발을 만들었다. 이 세상 오직 하나, 나만을 위한 신발인 것이다. 그러니 그 시대에는 신발이 발에 꼭 맞는다면 그 사람이 신발의 임자일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조명발이나 화장발 때문에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얼굴보다는 신발이 더 정확했을 수 있다. 왕자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고, 덕분에 무사히 무도회의 그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기성복의 시대는 아니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 형제들이 성장할 때마다 할머니는 재봉틀을 돌렸다. 할머니가 입던 한복이 내 원피스로 변신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준비물로 앞치마를 가져오라고 하자, 할머니가 뚝딱 만들어 주셨던 앞치마는 지금 생각해도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로 멋졌다. 겨울이 오면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셨다. 오빠가 입던 스웨터와 언니가 입던 스웨터가 합쳐져서 내 속바지가 되었다. 오래 입은 스웨터는 살이 얇아져서, 그것을 풀어서 새로 뜰 때는 두 겹으로 합쳐야 제대로 된 굵기의 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입던 낡은 외투를 뒤집어서 내 옷으로 만들기 위해 동네 양장점을 찾아갔던 날의 행복한 기억을 나는 지금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입었던 옷도 맞춤이었다. 처음으로 새 천으로 내 몸에 꼭 맞게 만들어진 자켓과 치마를 입고 나는 얼마나 흐뭇했던가.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손순의 효도

덕현
법천사 전수

손순은 삼국시대 신라 사람으로 월성 모량리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학산이라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다가 늙은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운오라 하였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므로 손순은 이를 민망하게 여겨 그의 아내와 의논하기를,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기 어렵소. 아이가 저렇게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머니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하겠소. 차라리 이 아이를 땅에 묻어 버리고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 들로 가서 아이를 묻으려고 땅을 파니 거기에서 갑자기 기이한 석종이 나왔다. 그들 내외는 놀라고 이상히 여겨 나무 위에 걸고 그 종을 쳐 보았더니 그 소리가 은은하고 고왔다. 아내가 말하기를, "이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이의 복인 것 같으니 아이를 묻지 말고 도로 데리고 갑시다." 아내의 말에 남편도 역시 그리 생각하여 아이를 업고 종을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와 석종을 들보에 달고 두드리니 그 소리가 대궐까지 들리었다. 흥덕왕이 그 종소리를 듣고 좌우 신하에게 말하기를, "서쪽 교외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나는데 더없이 맑고 멀리 들리니 속히 조사해보라."고 하였다.

왕의 사자가 그 집에 가서 조사하여 사실을 자세히 아뢰니 왕은 "옛날 곽거가 아들을 파묻으려 할 때 하늘이 금 솥을 내렸다더니 지금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하자 땅에서 석종이 솟아났으니 이 두 효도는 천지에 똑같이 본보기로다."하고 손순에게 집 한 채와 해마다 곡식 50석을 주어 그 지극한 효성을 숭상했다.

이에 손순은 전에 살던 집을 내놓아 절을 지었으니 홍효사弘孝寺라 하고 석종을 안치했다. 그러나 진성왕 때에 후백제의 도적들이 그 마을에 쳐들어와 종은 없어지고 절터만 남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전설입니다.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부모님을 먼저 공양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본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경주 수계사가 있는 마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손순을 기리는 사당과 유허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경주 현곡 소현리라는 곳인데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의 무대가 내가 종종 들렀던 곳 가까이에 있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곳은 수계사가 있는 뒷마을인데, 이제는 그 마을에 갈 때마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손순의 이야기를 자꾸만 되뇌게 됩니다. 문화재가 바로 집 앞에 있으니 삼국유사의 내용이 더욱 피부에 와 닿고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 인듯하여 더욱 새롭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하면 항상 손순의 유허비를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연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과연 이 손순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옛날의 케케 묵은 이야기라고 생각할까요?

어느 보살님이 부모와 자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되고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부모가 되어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부모님에게도 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혼이 나서 서운했던 일, 잘못을 저질러 벌 받았던 일, 회초리를 맞으며 야단맞았던 일,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무치게 부모님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가끔 전화를 걸면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 저것 걱정이 되어 물어보면, "우리는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마라."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진짜로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자식이 행여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하시는 건지...
부모님의 눈에는 아직도 자식은 어리게만 보이나 봅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조금만이라도 떼어 드린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엄청난 효자 효녀가 되지 않을까요.

시선

칭찬합시다!

경문지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느 공공기관 건물의 화장실처럼 우리 학교 화장실에도 이 글귀가 붙어 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라며 사람 관계를 다루는 책이나 강의에서도 지겨울 만큼 강조한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칭찬의 중요성.
'칭찬'이라는 존재는 잠깐의 등장만으로도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대단히 크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학교에 전문상담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을 위해 강의를 하러 오셨다.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했을 주제였을 텐데 이제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책임지는 보호자로서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아이들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무서운 눈으로 아이를 억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기쁨만큼 함께 기뻐하며 '칭찬'하세요."
그 순간 참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칭찬을 잘하고 있나?' 내 대답은, '음... 분명 노력하고 있지!'였다.
요즘 음악실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서툰 단소와 리코더 연주 소리는 교실 앞 복도 전체를 가득 메운다. 나는 음악교과만을 전담으로 가르치다보니 한 명 한 명의 악기 실력에 더욱 집중하며, 뒤처지는 아이들은 좀 더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늘 개인지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요즘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는 리코더 혹은 단소라는 친근한 악기가 몇몇 아이들에게는 본인을 괴롭히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다른 친구의 연주를 잠시 봐주는 사이에 그새 악기를 놓고 딴 짓을 하거나, 크게 떠들거나, 한숨을 푹푹 내쉬며 온갖 불만을 표출하곤 한다.
이미 포기해버린 아이들. 그렇지만... '선생님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다짐과 함께 혼자서 곧잘 하는 아이들은 본인의 요구에 맞게 가끔 지도해주는 동시에, 대부분의 지도 시간에는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더 싱글벙글 웃으며 찾아가 차근차근 악기 연주법을 알려준다.

지금 6학년 아이들은 꽤나 어려운 곡을 리코더로 연습하는 중인데,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꼭 반에 2~3명은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은 음계 자체를 불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개 한 개의 음을 불 수 없는데 완성된 곡 연주가 웬 말인가.

그 아이도 나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 상황임이 분명하다. 바로 이 때 발동하는 나의 방안은 그저 딱 두 개다.

'무릎이 까매지더라도 아이의 눈높이에서 정성스레 알려주기', 그리고 '아주 사소한 과제였다 하더라도 성취했을 시 크게 '칭찬'하기'.

이 효과는 꽤나 탁월했다.

태도도 불량하고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도 크게 없는 아이가 악기 연습도 하지 않기에 사실 나 또한 '아, 도와주기가 쉽진 않겠다...' 생각했지만, 그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을 맞추고서 반항할 겨를도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연습시키니, '휴~' 하면서도 악기를 물고는 있다. 그리고는 아이가 정말 천천히 음을 짚어 나간 결과, 한 마디라도 연주를 해내고 나면 진심을 다해

"봐! 할 수 있네! 할 수 있으면서 놀고 있었다니!!",

"선생님하고 같이 한 부분까지만 몇 번만 연습해보자."

"오~ 그새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등등 칭찬을 계속 한다.

물론 어떤 아이는 이런 나를 보고,

"선생님, 뭘 그렇게까지 말씀해주세요~^^;"라며 선생님의 후한 칭찬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한다. 칭찬은 너무 과해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내가 느끼기에 이 아이는 저학년일 적부터 리코더를 불 때만큼은 칭찬을 전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응? 아까 그 부분 못했었지만 결국 불렀잖아? 그걸 해냈으니까 당연히 대단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 괜히 쑥스럽게 웃고는 다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참 쉽진 않다. '칭찬'이라는 것. 정도도 적당해야 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명분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고, 어떨 때만 하고 어떨 땐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또한 있어야 한다.

현재의 나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나, 선생님이라는 역할에 있어서도 '칭찬을 잘 하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깨달은 이것만은 확실하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춤추게 한다.'

나의 칭찬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이 춤을 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는 꽤나 짜릿하고 보람찬 경험으로 다가온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 그 누구에게라도 '진심' 즉 '진짜 마음'이 담긴, 이유 있는 '칭찬'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도 해보시길 바란다.

오늘, 우리 모두 "칭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할아버지 왕데슌

정리 : 이선희

24세. 극단에서 커리어 쌓기 시작
44세. 영어공부 시작
50세. 헬스로 운동 시작
57세. 다시 공연 무대 활동
70세. 다시 헬스 운동 시작

그리고,
79세. 염원했던 캣워크 무대에 서다
81세. 아직도 성취해야 할 꿈이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할아버지 왕데슌

혹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주저하고 있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할아버지가 있다.

중국 선양 출신의 왕데슌 할아버지가 79세의 나이에 패션쇼 런웨이에 올랐다. 할아버지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24세부터 연극배우 활동을 해온 그는 44세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49세 때 팬터마임 극단을 세웠다. 그리고 50세에 태어나 처음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해 운동을 시작했다. 패션모델이란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의 도전은 20년 만에 결실을 얻었다. 왕데슌은 베이징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며 캣워크를 선보였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팔순 노인의 도전 정신에 크게 감동했고, 할아버지의 사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로 퍼졌다.

왕데슌은 *"나는 올해 81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꿈을 갖고 있다"*며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것은 포기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당신의 꿈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가장 핫한 할아버지는 끝없는 도전으로 젊음 유지

자신의 80세 생일파티에서 테크노 뮤직을 틀기 직전 '중국에서 가장 핫한 할아버지'로 불리는 이날의 디스크 자키, 왕데슌은 고리타분한 전통적 노인 생일잔치에 대한 농담을 하며 말했다.

"오늘 같은 날엔 내가 앞에 '장수'라고 수놓아진 긴 예복을 입어야겠지요, 두 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나를 부축해 의자에 앉혀주고…"라며 그는 휘청대는 시늉도 했다. 그러나 은빛 장발을 휘날리며 산뜻한 흰 셔츠와 블랙 진을 입은 그는 노인의 쇠약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배우이자 모델, 창조예술가이기도 한 그의 등은 꼿꼿했고 두 눈은 유머로 반짝였다.

정신적 신체적 침체를 막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던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운동을 하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왔다. '노인'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말한다.

"지금 나이 81세 난 여전히 내 안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성공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왕데슌은 일생동안 운동을 해 왔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한 그는 지금도 매일 반 마일 이상 수영을 한다. "아침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책과 뉴스를 읽지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진 운동 시간이예요, 집 근처 헬스장에 갑니다" 음식은 술을 덜 마시는 것 외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는다.

언제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해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시작한 것은 50세였으며 그 이후 하루도 중단한 적이 없었다. 57세 때엔 세계 유일의 '살아있는 조각 공연'을 창안해 공연하다가 너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패션이란 개념이 별로 없던 1980년대 초 백화점을 찾아가 패션쇼 기획을 자청해 비키니 수영복 쇼까지 여는 성과를 올렸던 그는 79세에 드디어 그 자신이 베이징에서 런웨이에 올라 첫 워킹을 선보였다. 상의를 벗고 30년 가까이 정성을 쏟아 만든 '바디'를 과시한 그의 워킹은 대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패션쇼 이후에 나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그날을 위해 60년 동안이나 준비해 왔다는 것을?"

그는 노년기에도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말고 '꿈을 이루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꾸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자신은 삶에서 원했던 연기, 모델, 운동, 창조예술 등을 여러 형태로 이루었다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낙하산 타기 '패러슈팅'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사람의 정신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신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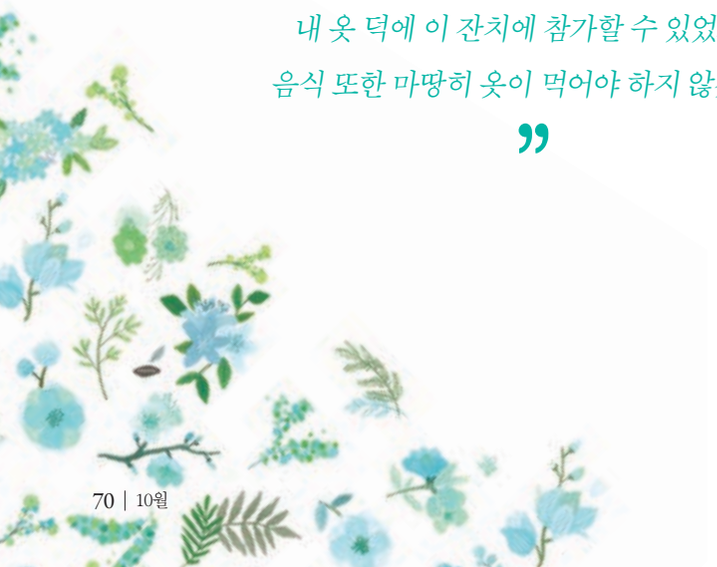
표현 할 것인가?
표현 당할 것인가?

법일
벽룡사 주교

옛날 어느 마을 잔치에 초라한 옷을 입은 선비가 찾아왔는데 선비의 옷차림을 본 하인들은 매몰차게 그를 내쫓았다.
잠시 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시 마을에 도착한 선비를 본 하인들은 정중하게 자리로 안내를 하고 잔치상을 봐 주었다.
선비는 받은 잔치 음식을 먹지 않고 옷에다 부었다.
하인들이 연유를 묻자

선비가 말하길,

"내 옷 덕에 이 잔치에 참가할 수 있었으니
음식 또한 마땅히 옷이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을 위한 옷차림> 의 저자 존 몰로이(John T. Molloy)는 사람과 복장에 관한 실험에서

1.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호텔을 출입하면 94%가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를 했다. 반면 허름한 옷을 입고 호텔에 출입하면 82%가 양보하지 않고 심지어 5%는 욕까지 했다.
2. 허름한 옷과 양복을 입은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면 양복입은 사람을 따라 같이 무단횡단을 하였다.
3. 평범한 옷을 입고 일 할 때 100명중 과제수행 능력이 20분 소요 되었고, 정장을 입고 과제수행을 하면 10분에 끝을 내었다.

연구에서 복장은 사회에서 지위나 품격의 상징으로 타인에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옷을 입은 당사자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옷차림은 타인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까지도 바꾸어 놓는다.
귀찮다, 귀찮다 하지 말고 단정한 옷으로
나만의 날개를 달아보자.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식품,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다르다고요?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1차 기능), 둘째, 맛·냄새·색 등의 감각적·기호적인 기능(2차 기능), 셋째,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3차 기능)입니다. 이 때 건강기능식품은 세 번째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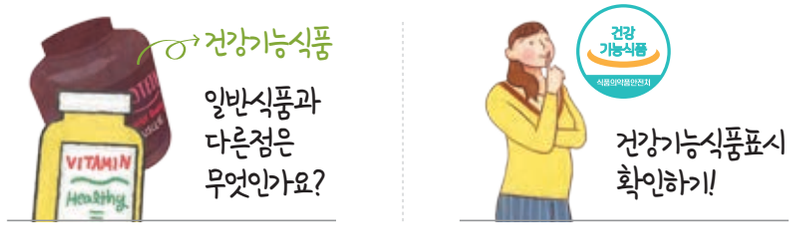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일반식품의 영양표시) : 기능성 표시가 없음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 : 기능성 표시가 있음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다르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간단한 팁!

① 홍삼제품에 '기타가공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과 무엇이 다른가요?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음료 등의 '기타가공품'은 홍삼 등을 원료로 제조 · 가공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도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 같은 '홍

삼'원료를 사용했는데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일상적인 식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기호의 목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공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쁜 현대인들은 쉽게 식단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들을 '보충제'를 통하여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가공품'과 같은 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찾으신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홍삼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습니다.

③ 은행잎 추출물, 홍삼 등과 같이 혈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제품처럼 혈핵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므로, 혈액 응고가 안되게 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혈액의 항응고 작용이 필요 이상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와 병용할 경우나 수술 전후 섭취를 피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수술의 경우 출혈이 많은 수술시에 혈핵 개선이 잘되는 제품을 섭취하면 지혈이 잘 안될 수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④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함으로 섭취하는 것이며, 의약품처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를 보기 위함이 아니므로, 제품 구매시 100% 기능 향상이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건강기능식품 중에 허위·과대 광고도 많잖아요. "이런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는 점을 알려주신다면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는 식으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유형의 과대광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뜻 바루기

정토

淨土

淨 깨끗할 - 정	土 흙 - 토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인간은 이상세계를 꿈꾼다. 그것은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한다. 끊임없는 고통을 인내 해야만 하는 게 중생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은 서양이라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utopia)라는 이상향을 말했다.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의 '없는(ou-)', '장소(toppos)'이라는 두 말을 결합한 용어로 '좋은(eu-)', '장소'라는 뜻도 함유하고 있다.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노력 밖의 세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희망의 원리로 작동한다.

불교에서 유토피아에 대비되는 세계가 정토이다. 정토는 인도에서 시작된 극락極樂이라는 맹아萌芽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관무량수경 등에서 '극락의 장엄'을 찬탄하고 아미타불을 억념하고 칭명하여 그곳에 왕생할 것을 가르치지만, 그 극락에 청정성을 부여하여 '극락'과 '정토'를 동일시한 것은 담란曇鸞 도작道綽에 이르러서이다.

이러한 정토를 풀이하면 '국토를 깨끗이 한다'는 의미와 '청정한(청정해진) 국토'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토(穢土; 더러운 것이 가득한 국토)의 상대적인 세계로써 정토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의 이념을 바탕으로, 과거에도 불타佛陀가 존재했었고, 현재에도 타방他方에 무수한 불타가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무수한 불타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수한 불타가 존재함에 따라 그 불타가 머무르는 곳의 국토도 각각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아미타불의 정토는 이곳으로부터 십만억국토를 지나서 있는 극락국토이며, 약사여래의 정토는 동방 십항하사十恒河沙 불토佛土를 지나서 있는 정유리淨琉璃세계이다.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문수文殊보살의 이진구심離塵垢心세계 등이 있다. 이러한 국토들은 각각 불타의 *본원력本願力에 의해 많은 생의 노력으로 이루진 세계들이다.

유토피아가 단지 사회학적인 개념인데 비해 정토는 불교인들에게 있어 믿음의 세계이고 실재의 세계로 존재한다.

* **본원력(本願力)** :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고 과거세에 일으킨 서원

갈등

葛
藤

葛 칡 – 갈	藤 등나무 – 등

개인의 정서情緖나 동기動機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

심리학 용어로, 이는 인간의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한다. 갈등 상태는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경향이 거의 동시에 존재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갈등의 어원이 된 칡과 등나무의 자리싸움

자연계나 사람살이를 잘 들여다보면 좌와 우가 부딪히는 좌충우돌에 갈등들이 아주 많다. 갈등은 '칡 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견해, 주장, 이해관계 따위가 서로 달라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이다. 칡과 등나무가 어떻게 불구대천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다툰단 말인가. 이들 식물의 특성을 알아야 '갈등'의 참뜻이 풀린다.

갈등이란 단어에서 갈葛은 칡이고 등藤은 등나무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두 나무는 모두 콩과 식물로 하나같이 뿌리에 근류세균(뿌리혹박테리아)이 들어 있다. 즉, 콩과 식물들은 뿌리에다 세균의 삶터를 제공해 주고, 뿌리혹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질소비료를 만들어 숙주식물에게 주며, 숙주에서 탄수화물을 얻어 사니 전형적인 공생 관계이다.

칡과 등나무는 각기 오른쪽과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이들 두 식물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모습에서 바로 우리들이 흔히 쓰는 '갈등'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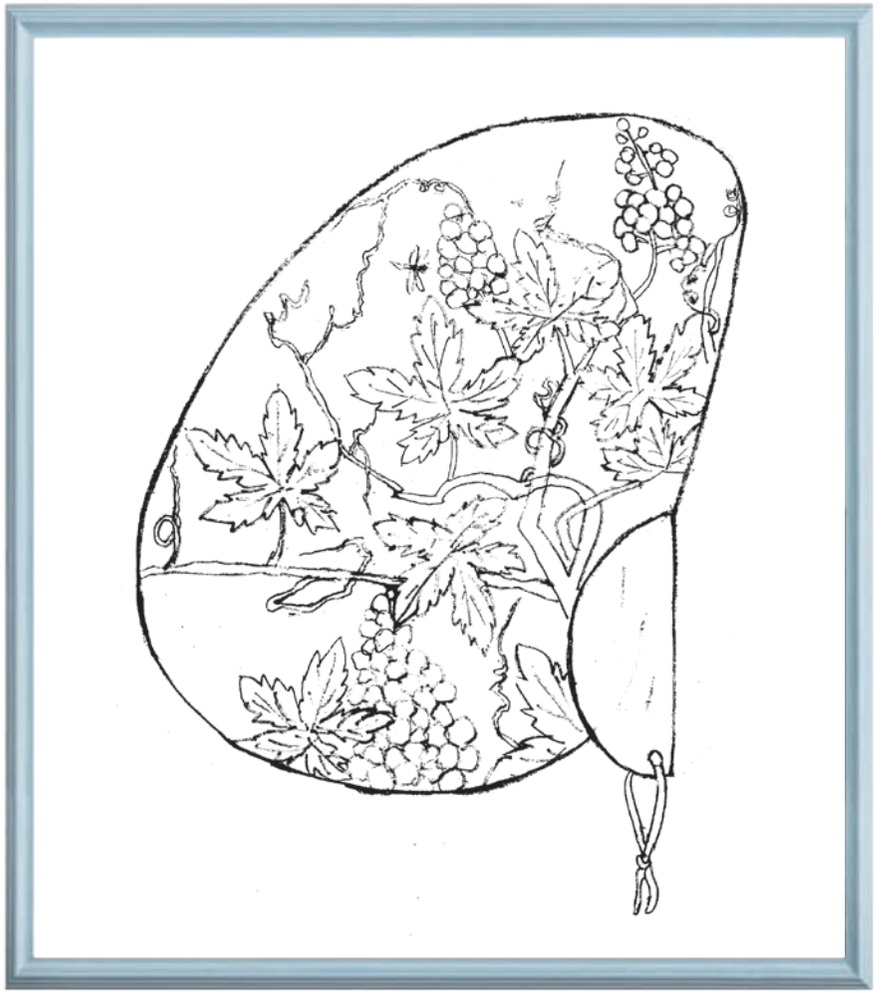
칡과 등나무는 동아줄 같은 센 줄기를 다른 나뭇등걸에 칭칭 휘감고 올라가는데, 오른쪽 감기의 달인達人인 칡과 왼쪽 감기의 명수인 등나무. 둘이 서로 반대로 종잡을 수 없이 뒤틀려 타래를 감으니 그 모양새가 갈등이다. 이리저리 비틀거나 꼬면서 움직이는 것을 용틀임이라 하지 않는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밀고 당기고, 솟고 누르고, 감아 덮으려 들며, 뒤틀고 펴는 불화와 상충을 칡과 등나무에서도 볼 수 있다.

사람의 속마음에도 착하고 악한 두 마리의 이리가 들었으니 어느 놈에게 맛있는 먹이를 더 많이 주어 키우느냐가 문제다. 한恨은 물에 흘려 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했다. 흠결 없이 오롯이 참되게 살아도 짧디 짧은 인생인 것을…….

출처 : 두산백과, 권오길의 괴짜 생물 이야기

만다라세상 컬러링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경북 포항시 **강선우** 님 |

| 경북 포항시 **강선아** 님 |

| 경남 울산시 **이유정** 님 |

| 서울 강남구 **김솔비** 님 |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위드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6(2017)년 10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 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권도연	김덕원	김봉래	김송자
김양숙	남 익	류승조	밀공정	박말숙
배도련	법 공	법계월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송유나	수증원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정재봉	정정심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효 강			

–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편집 후기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중에서

정동길에 공연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60여 년 만에 개방된 덕수궁 돌담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었던 덕수궁 돌담길이 개방이 된 것이다. 정동극장으로 가는 길만 알았고, 그 길만 다녔던 나였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돌담길을 거닐 수 있다니… 아직 협상이 되지 않아서 온전히 한바퀴를 돌 수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개방 된 돌담길이라도 걸을 수 있어 좋았다. 영국대사관 붉은 담장과 울창한 수목의 어울림이 아름다웠다. 자연스럽게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흥얼거리게 되었고,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고궁의 돌담길을 거닐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우리 땅이지만 한번 빼앗기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문화재도 마찬가지 있겠지? 덕수궁 돌담길 한바퀴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온전히 한바퀴 돌 수 있는 덕수궁 돌담길까지는 아직 70m가 모자란다고 한다.

행복하라 더불어 행복하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너의 행복 때문에

남을 불행에 빠뜨리지는 마라

- 환당 대종사 -